



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과 시사점

이아름 연구원

■ 최근 터키 리라화 가치와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터키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함.

-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2013년 5월 1.80리라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 2리라 수준을 유지하였음.
- 11월 들어 12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부담이 재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다시 상승하였고 12월 들어서도 6.3% 상승하는 등 신흥국 통화 중 달러 대비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.
 - 1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12월 18일에 2.05리라를 기록하였고, 12월 27일에 사상 최고치인 2.15리라를 기록함.
- 주가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터키증시인 XU100지수는 2013년 12월 들어 21.0% 하락하였고 2013년 전체적으로는 32.0%가 하락하며 2013년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.
 - XU100지수는 2013년 5월 22일 93,1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시사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.

■ 경제개혁이 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단행으로 터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리라화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됨.

- 과거 터키 정부는 재정지출과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지만 아직 취약한 상태임.¹⁾
- 터키는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터키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임.
 - IMF에 따르면 터키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6.1%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7.4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.

1)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재정지출 축소, 변동환율제도 도입,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등을 포함함.

-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2013년 2.0%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.

- 최근 터키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,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리라화 가치가 하락함.

■ 더불어 최근 발생한 에르도안 터키 총리의 사상 최대 비리 스캔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금융시장 불안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.

- 이번 스캔들은 에르도안 총리와 당내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굴렌 사이의 권력다툼에서 시작되었으며 12월 17일 에르도안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 9명을 교체하고, 경찰 간부를 대거 직위해제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은 악화됨.
- 이번 수사로 인해 XU100지수는 12월 17일 5.2% 하락하였고 이어 18일에도 2.9%의 하락세를 보임.
- 2010년 연임한 에르도안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확대한 후 2014년 8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임.
- 로이터 통신은 2013년 12월 터키 중앙은행이 2014년 1월 말까지 최소 6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터키 금융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함.

■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다른 신흥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- 터키 리라화 가치는 당국의 조치가 제시될 때마다 반등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효과가 단기적이었음.
-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을 점검하면 터키는 인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과 더불어 외환보유고가 적고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심한 '고위기 위험국'으로 분류됨.
 - IMF는 GDP 대비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2%, 5% 이상, 물가상승률 5% 이상,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100% 이상 등을 위기판단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, 터키는 이를 모두 상회하고 있음.²⁾
- 뉴욕타임스(NYT)는 터키 정부의 정치적 위기 억제 노력에도 리라화 약세가 재현될 것이며, 달러 차입을 통한 대형 건설 투자를 성장 기반으로 삼았던 터키 경제가 흔들리면 브라질, 인도,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함.

(Bloomberg, FT 등)

2) 함영근(2013), 「터키, 금융위기 가능성 재부각」, 주간브리프,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.